

생약협회가 뽑은

95년 생약업계 10대 뉴스

국산한약재상설매장 개장

국산한약재 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국산한약재 상설매장이 문을 열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가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으로 기존의 중앙공판장을 편의점식으로 개조하고, 대형부대에서 근수를 달아 판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6백g 단위로 규격포장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산지 회원 농가들과 직거래를 통해 약재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시중보다 비교적 값도 저렴하고 생산지 생산자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질 좋은 국산약재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설매장의 등장으로 제기동 경동약령시장 내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기존의 한약상들이 국산한약재상설매장과 유사한 분위기로 상가를 개조한 것이다.

집중 호우, 약초농사 피해

며칠을 두고 쏟아진 폭우로 인해 수확기를 앞둔 약초밭이 침수 유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비 피해가 극심했던 경기, 강원, 충남지역의 경우 농경지 4만1천4백여ha가 물에 잠겼으며 경기도 연천지역도 집중 호우로 임진강이 범람

황기, 당귀 등 그 일대 약초밭 5만여평이 유실되거나 토사에 묻혀 수확이 어려웠다.

약초농사가 전반적으로 수해 피해를 입었지만 그 중에서도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등 열매류 약재의 피해가 심했으며 예년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생산량으로 가격폭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지황계약재배

한국생약협회는 다수확 품종인 「북경1호」를 도입 지난해 처음으로 지황계약재배에 들어갔다.

지난해 지황계약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11만평 수확량은 건근으로 약 50t 정도이다.

지황의 수요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산만으로는 공급이 불충분하여 해마다 작게는 1천t, 많게는 2천5백여t씩을 중국으로 부터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황의 국내 생산량이 너무 적어 수입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생약협회의 지황계약재배는 각별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제약사 엑스제 수입

제약회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 원료의 대부분이 수입 엑스제로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생약재배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해당원료가 함유된 의약품을 생산

한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여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초재 보다 엑스화된 한약재의 가격이 월등히 싸다는 것도 이들 제약회사에서 엑스제 수입을 선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다.

경동약령시 지정

서울 제기동 경동한약상가가 경동약령시장으로 지정됐다.

서울 경동약령시협회(회장·윤영진)는 지난 10월 25일 경동약령시장 개에서 조순 서울시장 박상천 국회보사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한약시장인 약령시 지정 선포식 행사를 치렀다.

윤영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령시 지정은 계기로 상가내 한약재 도매시장과 한약재 상설전시관, 한



의약문화원 한방백화점 등의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 이 지역을 서울의 명소이자 세계적인 한의약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약재 규격화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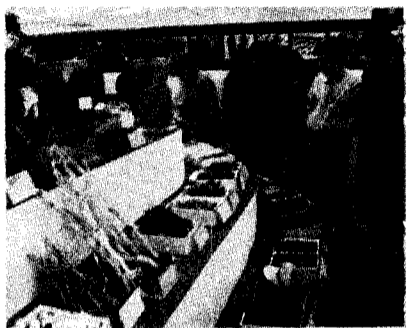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당초 95년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던 한약재 규격화를 96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한편 관리규정상의 한약재 총중금속 허용기준을 현행 1백PPM에서 30PPM으로 강화했다.

한약재 유통관리규정에 대한 유권해석도 애매하기 그지 없어 지난 한해동안 관계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재배농민들과 보건복지부간에는 공방전이 계속됐다.

보건복지부는, 농민이 표준규격에 적합한 한약재를 생산 한약 판매업자에게 넘길수는 있지만 농민이나 단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규격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원료의약품 제조업소를 통해서만 규격품을 유통시킨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2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국산 한약재 1백50여종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 까지 용산역 광장은 국산약재를 구입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발길로

연일 대성황을 이뤘다.

한국생약협회가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으로 개최한 제2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는 국내 재배약초 1백50여종과 회귀 약재들을 각도 전시관 별로 특색있게 꾸며뒀으며 생약재를 이용한 약용주, 약용차, 방향제, 건강배개 등이 다양하게 전시 판매됐다. 또 국산한약재의 우수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비교전시관은 황기, 당귀, 천궁, 고본, 시호, 오미자 등 54종의 한약재가 수입산과 국산으로 나란히 비교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건강상담실 코너를 마련 한의사 무료 진료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귀값 폭락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부터 당귀값이 유래없는 최악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재배농민들이 지난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당시 산지에서 거래되던 당귀시세는 6백g당 2천5백~3천원 선으로

94년 당시 시세 6천~6천5백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

당귀값이 이렇듯 곤두박질 친 원인은 제약사들의 수입엑스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국내산 당귀 수요가 급격히 줄고 그만큼이 재고로 쌓여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당귀 폭락 시세는 지금도 여전하다.

생약 가공 식품 개발 붐



생약재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이 붐을 이루었다. 주로 한약을 조제하는데 이용돼 오던 생약재가 차, 드

링크, 엑기스, 술로 개발돼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다.

청양의 구기자, 구례 산수유를 비롯 동굴레(황정), 두충 등이 캔음료와 과립차, 티백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 고창군의 복분자술, 태백농협이 개발한 당귀음료가 「고원디」와 「늘 푸른 잔디」 2가지 종류의 캔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소비량이 아직은 한정돼 있긴 하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약재를 이용한 음료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밀수 황기 공매입찰

세관에서 압수된 밀수품 황기 70t이 복지공단에서 공개입찰로 처분된 사실이 알려짐으로서 재배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공매처분된 황기 70t은 결국 그 뒤에 있는 더 많은 밀수품의 유통을 합법화 하는데 이용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생약재배 농민들은 압류된 밀수품을 전량 폐기처분

하라는 진정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농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황기는 국내 생산량이 많아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의 절반가에도 못미치는 수입황기가 시중에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생산자보호 차원에서 「한약재로 반입을 제한하고 식품원료로는 무제한 들여올 수 있도록 수입을 허용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밝혔다.